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16~20일
코스피지수	2091.52	▲ +42.32
코스닥지수	649.07	▲ +18.70
환율 (원·달러)	1188.50	▼ -6.00

지수는 20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비즈패트를 | 삼성-LG 'TV전쟁' 접입가경

삼성 "QLED 540만대 판매" vs "허위광고" LG

삼성 판매량 공개해 '대세' 강조 OLED와 판매격차 더 벌어질 것 LG "삼성 QLED는 LCD TV일뿐" 소비자 현혹...공정거래위에 신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차세대 TV 주도권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은 자사 QLED TV 누적 판매량이 540만 대를 넘어 올레드 TV를 압도했다고 밝혔고, LG는 삼성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면서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삼성의 QLED 8K TV(왼쪽)와 LG의 8K 올레드 TV.

사진제공 | 삼성전자·LG전자

지난 주부터 불붙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은 QLED TV의 누적판매량을 공개해 올레드(OLED) TV 판매를 압도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하는 등 연일 평공을 퍼붓는 LG와의 차세대 TV 주도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삼성은 2017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QLED TV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록한 누적 판매량이 540만 대를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약 200만 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

(87만 대)보다도 127%나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판매 전망치가 약 300만 대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 QLED TV는 올해 연간 500만대가 팔려 2018년(260만대)보다 92% 증가할 것이라는 게 삼성 측 전망이다.

특히 삼성은 이번 발표에서 LG를 겨냥해 올레드 TV와의 판매실적을 비교했다. 삼성에 따르면 상반기 OLED TV

전체 판매량은 122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만 대)보다 15% 성장하는데 그쳤다. 삼성은 "시장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종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8K를 포함한 QLED TV 시장을 더 확대해 글로벌 TV 시장 1위 브랜드의 위상을 공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시장조사 기관 IHS마

킷에 따르면 삼성은 2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31.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삼성이 QLED TV 판매량을 발표한 것은 최근 LG의 거센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행보의 일환이다. LG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광고에서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으며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주장이다. LG는 이번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LG의 신고에 대해 "국내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1조 원 생수 시장을 잡아라!"

이마트 '국민워터' 출시...홈플러스 등 반격

대형마트가 1조 원 생수 시장 선점을 위한 초저가 경쟁에 돌입했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2014년 6040억 원에서 지난해 1조1524억 원으로 4년 새 2배 가량 성장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생수는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이커머스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인데, 이번에 대형마트들이 이커머스에 내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

선두주자는 이마트로 19일 초저가 국민가격 3단으로 자체브랜드(PB) '국민워터'(2리터)를 내놓았다. 6병에 1880원, 리터당 157원이다. 경쟁사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즉각 반격에 나서 롯데마트는 25일 까지 PB상품 '온리프라이스 미네랄 워터'(2리터) 6병을 165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도 25일까지 PB상품 '바른샘물'(2리터·사진) 6병을 1590원에 판매한다.

이갑수 이마트 사장은 "고객 요구에 맞는 상시적 초저가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지난해 평균연봉 3634만원...내 연봉 수준은?

환경연 임금근로자 1544만 명 분석 대기업 6487만원, 중소기업 3771만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3.2%, 49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34만 원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1544만 명을

분석한 '2018년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34만 원으로 2017년 3475만 원 보다 4.6%(159만 원) 올랐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정규직이 6487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3771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해 대기업 정규직은 0.4%(27만 원) 인상된 반면, 중소기업은 4.9%(176만 원)가 올라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컸다.

또한 조사 대상 근로자 중 상위 10%의

연봉은 6950만 원 이상이었다. 이어 상위 20%는 5062만 원 이상, 상위 30%는 4064만 원 이상, 상위 40%는 3380만 원 이상, 상위 50%는 2864만 원 이상이었다.

특히 '선망의 연봉'으로 불리는 1억 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3.2%인 49만 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로 연봉 2000만 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392만 명으로 전체의 25.4%나 됐다. 전체 근로자 네 명 중 1명은 연봉 2000만 원 이하를 받는 셈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감

2018 연봉금액별 근로자 분포		
연봉	근로자수	근로자수 비중
1억 원 이상	49만 명	3.2%
8000만 원~1억 원 미만	56만 명	3.6%
6000만 원~8000만 원 미만	116만 명	7.5%
4000만 원~6000만 원 미만	253만 명	16.4%
2000만 원~4000만 원 미만	678만 명	43.9%
2000만 원 미만	392만 명	25.4%
합계	1544만 명	100.0%

* 자료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소한 반면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늘어나고 있다"며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크로스파이어' 글로벌대회 이집트서 성료 스포츠마케팅 엔터테인먼트가 이집트 카이로 스타디움에서 개최한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 대회 'CFS 인비테이셔널 이집트 2019'가 21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끝났다. 우승은 중국의 슈퍼 팔리언트 게이밍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이집트에서 열린 첫 글로벌 e스포츠 이벤트로 약 10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스포츠마케팅은 10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CFS 인비테이셔널 브라질 2019'를 열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대한항공, 13년째 中 쿠부치 사막 나무심기 봉사

대한항공은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의 조림지 '대한항공 생태원'에서 황사방지 나무심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째

쿠부치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다. 올해는 50여 명의 대한항공 직원을 포함한 중국 현지사 직원 및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쿠부치 사막은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

사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다. 면적 1만 6100km²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사막으로 매년 서울의 5배에 달하는 먼지가 사막화되고 있다. '대한항공 생태원'은 지역 사막화 방지뿐 아니라 황사를 막는 방사림으로 대한항공은 올해 총 7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말까지 이곳을 약 157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숲으로 조성한다. 대한항공은 중국 쿠부치 지역 외에 2004년부터 몽골 바가노르구 인근 '대한항공 숲'에서도 매년 나무심기 봉사활동으로 현지 사막화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범 기자

면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교육·퍼즐

에듀월

'독한 평생패스' 제한없이 무제한 수강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2022년부터 고교 선택과목 폐지...영어 부담감 ↓

고교 선택과목이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에서 2022년부터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지방직 9급 시험에서도 폐지가 결정됐다. 또한 2021년부터 지방직 7급공무원 시험에서도 영어와 한국사 대신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고교 과목이 폐지되면서 선택과목제도 때문에 도입된 조정점수제도 폐지된다. 대부분의 공시생은 영어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조정점수제가 폐지되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필수 과목과 직렬별 전문 과목이 모두 원점수로 채점될 경우 과목 간의 점수 비중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의 과목, 필기시험 시기, 원서접수 방법 등의 변화는 향후 공무원 시험에서 많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합격생들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은 물론 빠른 복습, 회독, 문제풀이 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에 종합교육기업 에듀월은 합격생들의 노하우를 담은 독하게 학습을 영위할 수 있는 '9급공무원 독한 평생패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날 바로 복습할 수 있는 복습 프로그램, 9회독 반복 커리큘럼, 7500문제 문제풀이 훈련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 과목 전 교수진의 강의를 횡수 제한 없이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여기에 합격생 학습 상담, 교수진 학습 코칭, 학습 매니저의 관리 등 1:1 밀착관리 서비스를 통해 철저한 학습관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에듀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스도쿠문제

3			7			2
6		5	2		9	1
		2	9		3	
6		7	4		9	
5					1	
2		1	5		3	
		6	4		1	
7		1	5		4	3
5			1			9

5			8	2			4
		1			9	7	
		2		7		8	
		3		2	8		1
8		5				3	2
6			7		1		5
		5			8		1
		7	9			8	
1				6	5		7

■ 스도쿠정답

6	2	1	9	7	8	5	4
8	9	4	2	5	8	1	6
8	5	1	2	7	6	9	3
7	8	9	5	1	2	6	3
1	9	6	8	2	5	7	4
9	6	2	4	1	8	9	7
9	7	8	1	6	5	2	3
1	2	6	8	2	5	7	9
2	8	9	1	7	6	1	8
4	7	2	5	9	8	6	1
5	8	8	2	1	6	2	9
6	1	9	2	8	7	5	3
8	9	6	1	3	2	7	4
2	2	8	7	6	9	5	1
1	9	7	8	2	6	1	3
8	8	9	1	2	1	7	2
9	2	4	6	7	5	1	8
7	6	1	2	8	9	1	9